

[아세안]

박용대 Yongdai Park
02-3774-1782
yongdai.park@miraesaset.com

베트남 주식시장

VN30 지수 리밸런싱 프리뷰

- 빈흠즈(VHM), 테콤뱅크(TCB), 호치민시개발은행(HDB)의 신규 편입이 유력하며, KIDO그룹(KDC), 빈민플라스틱(BMP), 호아센그룹(HSG)은 편출될 것으로 전망
- VN3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드물며, 아직까지는 리밸런싱 효과의 파급력은 작은 편

다가오는 VN30 지수 리밸런싱

VN30 지수는 베트남 증시를 대표하는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. 단순히 시가총액 기준이 아닌 나름의 방법론(시가총액, 유동주식비율-free float, 유동성-liquidity)에 근거해 종목이 선정된다. 지수는 매년 2회(2월과 8월의 1번째 월요일) 리밸런싱 된다. 곧 다가오는 리밸런싱 종목 발표일은 1월 21일, 시행일은 2월 4일로 예상된다.

빈흠즈(VHM), 테콤뱅크(TCB), 호치민시개발은행(HDB)의 신규 편입이 유력하며, KIDO그룹(KDC), 빈민플라스틱(BMP), 호아센그룹(HSG)은 편출 될 것으로 전망한다.

‘편입 전 최소 6개월 상장요건’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난 7월 VN30 지수에 편입되지 못한 VHM과 TCB가 금번에는 최우선으로 편입될 것이다. 두 종목은 방법론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들로 꼽힌다. HDB는 두 종목 대비 시총 규모는 작지만 시총 20위 종목이며, 유동주식비율과 유동성 기준에 부합하여 무난히 편입될 것이다. 따라서 KDC, BMP, HSG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날 것으로 판단된다.

아직은 제한적인 리밸런싱 효과

30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론은 동일하다. **하지만 1) VN30 지수 내 그룹당 상한선 비중(Capped weight)이 15%로 새로 생겨 났으며, 2) 리밸런싱 시행일이 변경되었다.**

기존 종목당 상한선 비중은 10%였다. 여기에 추가로 그룹당 상한선 비중 15%가 새로이 생겼다. 예를 들어 ‘빈패밀리’로 불리는 빈그룹(VIC), 빈흠즈(VHM)와 빈콤리테일(VRE)의 합산 비중은 15%로 제한된다. 이로 인해 10%로만 제한됐었던 VIC 비중이 VHM의 신규 편입으로 인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. VRE도 비중 축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.

또한 테콤뱅크(TCB)는 마산그룹(MSN)의 은행 계열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맥락으로 15% 상한선이 적용된다. 따라서 MSN의 비중 축소도 불가피해 보인다.

과거 사례를 보면 대체적으로 신규 편입 종목의 주가는 **우상향의 움직임**을 나타냈으며 편입비중이 큰 대형주일수록 상승폭은 컸다. 반면 편출 종목들은 각각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냈다. 이 흐름은 금번 리밸런싱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. 다만 비교적 큰 폭의 비중 축소가 예상되는 VIC, VRE, MSN의 주가는 단기적 약세를 보일 수도 있다.

하지만 VN30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는 드물다. 대표적으로 VFMVN30 ETF(E1VFN30)가 있는데, NAV는 약 2천억원 규모다.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수급 파급효과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.

기존 리밸런싱 시행일은 종목 발표일의 1주 후인 1월과 7월의 4번째 월요일이었는데, 2주 후인 2월과 8월의 1번째 월요일로 변경되었다.

표 1. VN30 지수 구성 종목 추이

종목	섹터	2016		2017		2018		2019 상반기(예상)
	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
BID	은행		●	●	●	●		
BMP	산업재			●	●	●	●	
BVH	보험	●	●	●	●	●		
CII	인프라	●	●	●	●	●	●	●
CTD	건설			●	●	●	●	●
CTG	은행	●	●	●	●	●	●	●
DHG	제약			●	●	●	●	●
DPM	화학	●	●	●	●	●	●	●
EIB	은행	●						
FLC	부동산	●	●					
FPT	IT	●	●	●	●	●	●	●
GAS	유틸리티		●	●	●	●	●	●
GMD	운송	●	●	●	●	●	●	●
HAG	농산물	●	●	●				
HCM	증권	●	●					
HDB	은행							●
HHS	자동차/부품	●						
HNG	음식료		●	●				
HPG	철강	●	●	●	●	●	●	●
HSG	철강	●	●	●	●	●	●	
HVG	수산물	●						
ITA	부동산	●	●	●				
KBC	부동산	●	●	●	●			
KDC	음식료	●	●	●	●	●	●	
MBB	은행	●	●	●	●	●	●	●
MSN	음식료	●	●	●	●	●	●	●
MWG	유통		●	●	●	●	●	●
NT2	유틸리티	●	●	●	●	●		
NVL	부동산				●	●	●	●
PLX	정유/화학					●	●	●
PNJ	소비재						●	●
PPC	유틸리티	●	●					
PVD	정유/화학	●	●	●	●			
PVT	운송	●						
REE	엔지니어링	●	●	●	●	●	●	●
ROS	건설				●	●	●	●
SAB	음식료				●	●	●	●
SBT	음식료	●	●	●	●	●	●	●
SSI	증권	●	●	●	●	●	●	●
STB	은행	●	●	●	●	●	●	●
TCB	은행							●
VCB	은행	●	●	●	●	●	●	●
VHM	부동산							●
VIC	부동산	●	●	●	●	●	●	●
VJC	항공					●	●	●
VNM	음식료	●	●	●	●	●	●	●
VPB	은행						●	●
VRE	부동산						●	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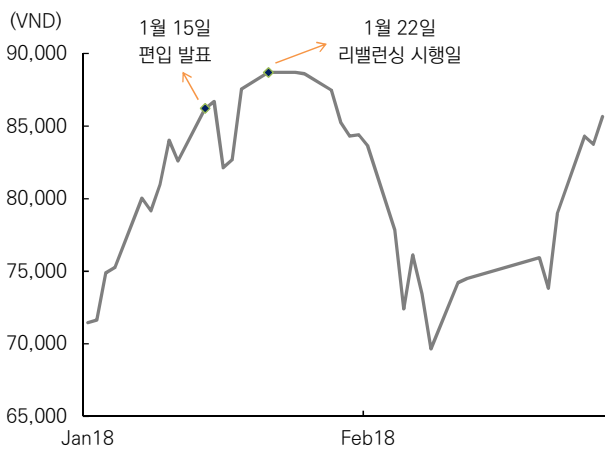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표 2. VFMVN30 ETF(E1VFN30)의 종목별 주식수 및 비중 (2019년 1월 2일 기준)

종목	주식수(10만주)	비중	종목	주식 수(10만주)	비중
VIC	1,620	11.77%	GAS	250	1.53%
VNM	1,210	10.92%	SSI	790	1.48%
MSN	1,380	7.59%	CTG	980	1.30%
HPG	3,360	7.20%	CTD	110	1.27%
VPB	4,790	6.55%	GMD	670	1.24%
VJC	710	5.89%	PLX	310	1.23%
VRE	2,770	5.50%	SBT	780	1.13%
MWG	730	4.41%	REE	450	0.97%
SAB	250	4.39%	ROS	370	0.96%
MBB	3,130	4.20%	CII	480	0.88%
NVL	840	3.83%	DPM	410	0.64%
VCB	950	3.73%	KDC	330	0.55%
STB	4,520	3.64%	DHG	90	0.48%
FPT	1,210	3.59%	BMP	100	0.35%
PNJ	360	2.34%	HSG	660	0.2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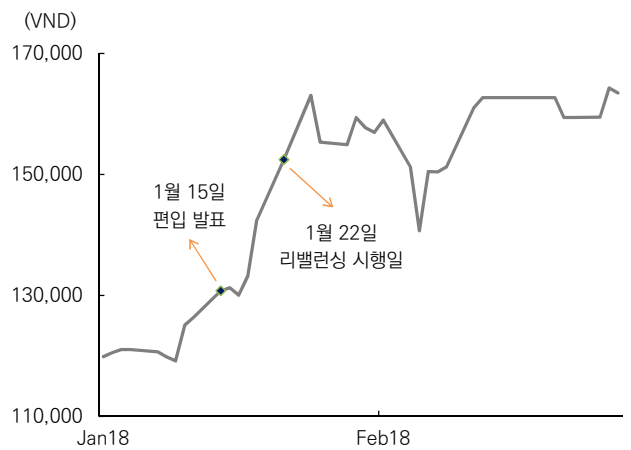
자료: VFM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그림 1. 18년 상반기 신규 편입: PLX 주가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그림 2. 18년 상반기 편입: VJC 주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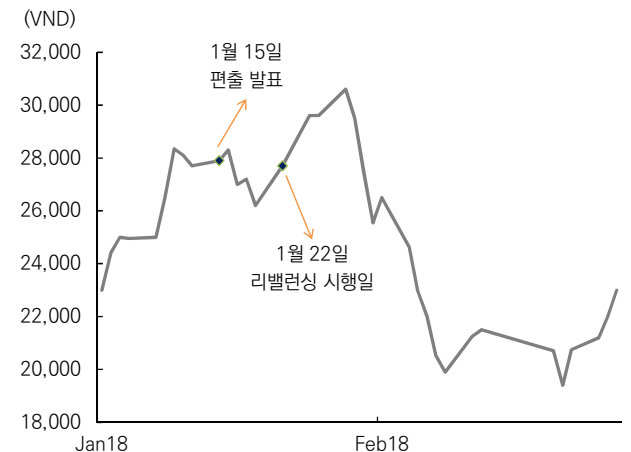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그림 3. 18년 상반기 편출: KBC 주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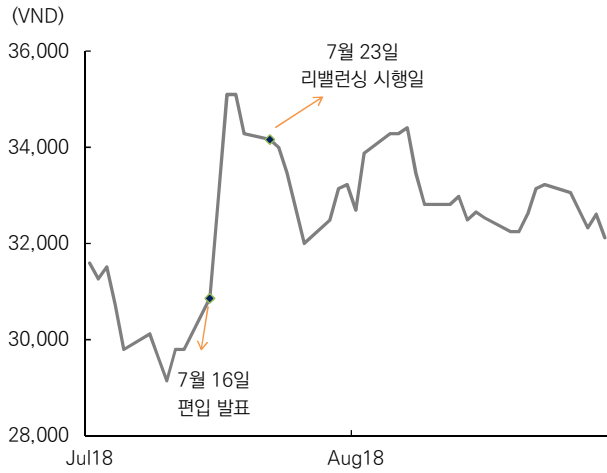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그림 4. 18년 상반기 편출: PVD 주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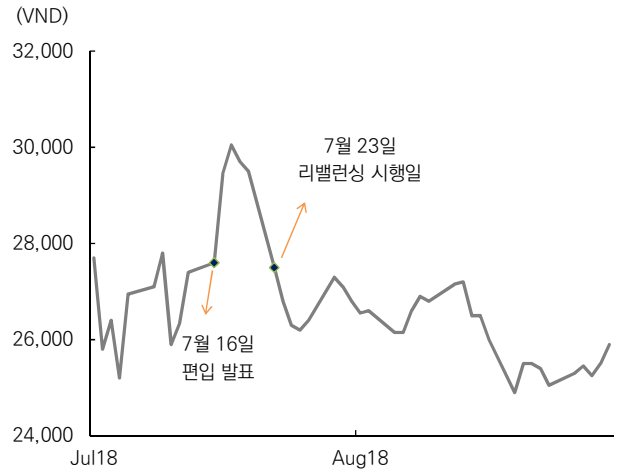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그림 5. 18년 하반기 신규 편입: VRE 주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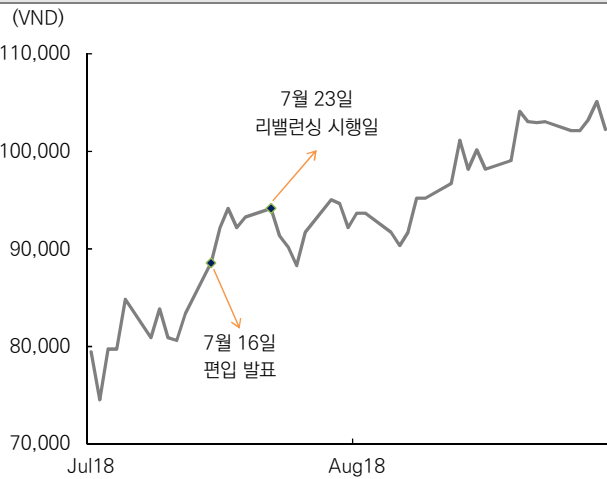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그림 6. 18년 하반기 신규 편입: VPB 주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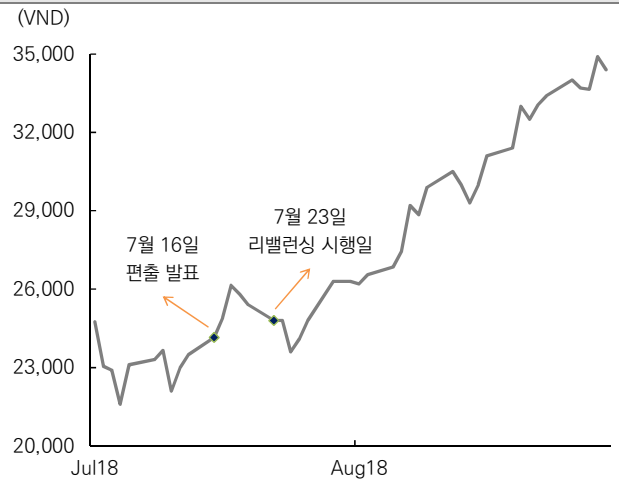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그림 7. 18년 하반기 신규 편입: PNJ 주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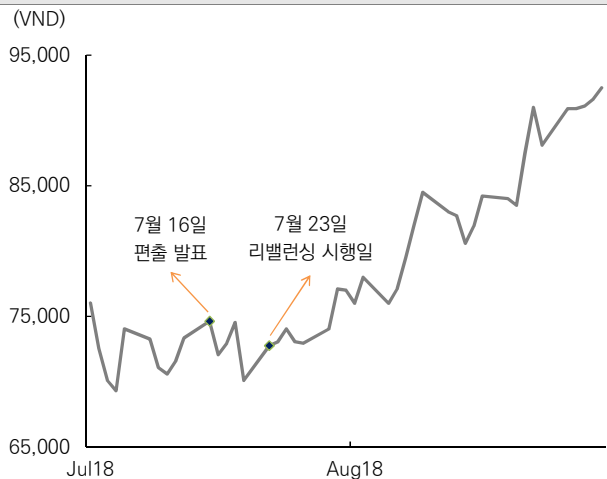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그림 8. 18년 하반기 편출: BID 주가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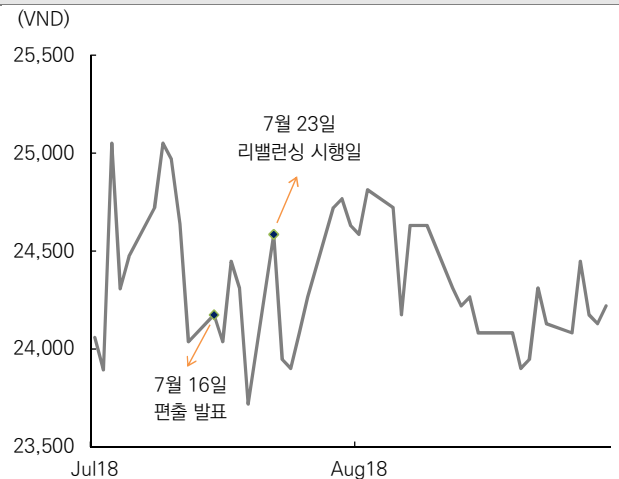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그림 9. 18년 하반기 편출: BVH 주가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그림 10. 18년 하반기 편출: NT2 주가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은행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